

수수료 인하에 일임형 확대... 증권사, 퇴직연금 유치 올인

금감원, 퇴직연금 실물이전 도입 후 은행에서 증권사로 6491억 이동 이전고객 100만원 상품권 이벤트도

일부상품 이전제외, 시간소요 등 퇴직연금 이전 활성화 과제 남아



여의도 증권가 전경.

/손진영 기자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도입 이후 증권사로의 자금 이동이 뚜렷해지면서 금융사들의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운용수수료 인하, 일임형 상품 출시, 실물이전 이벤트 등으로 가입자를 끌어들이고 있지만, 일부 상품의 이전 제한과 거래 중단 문제 등 제도적 한계도 여전하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도입 이후 6491억원이 은행에서 증권사로 이동했으며, 은행은 4611억원이 순유출됐다. 그중에서도 개인형퇴직연금(IRP)과 확정기여형(DC)을 중심으로 증권사 선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IRP와 DC형은 근로자

가 직접 운영하는 구조여서 다양한 투자상품을 제공하는 증권사가 유리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래에셋증권의 경우는 연금 자산(퇴직연금+개인연금) 규모가 45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 2월 20일 기준 30조 7000억원으로, 1월 23일 기준 30조 1000억원에서 한 달 만에 6000억원 증

가했다. 세부적으로는 확정급여형(DB) 6조 860억원, DC 12조 3734억원, IRP 12조 264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증권사들은 운용 수수료를 낮추고, 인공지능(AI) 기반 '일임형' 상품을 확대하며 차별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또한 삼성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

사들은 IRP 및 DC형 실물이전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증권업계는 퇴직연금 운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ETF 적립식 매수 서비스 확대, 연금 개시 시뮬레이션 도입 등 디지털 연금 관리 시스템을 강화에도 나섰다. 미래에셋증권의 경우는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RA) 서비스를 도입해 가입자 투자 성향에 맞춘 맞춤형 포트폴리오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퇴직연금 실물이전이 활성화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일부 금융상품이 실물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ETF, 예·적금 등 일반적인 금융상품은 실물이전이 가능하지만 머니마켓펀드(MMF), 리츠, 주가연계증권(ELS), 실적배당형보험, 금리연동형보험 등은 현금화해야만 이전할 수 있다. DC형에 가입 중인 직장인 황두나 씨는 "기존에 운용하던 상품이 윗고 싶은 증권사에 없어서 번거로우 바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전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도 문제다. 실물이전에는 평균 3~4일이 걸리고 해당 기간 동안 계좌에서 매매나 출금이 불가하다.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 대응이 어렵고, 자금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제기된다. 또한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나 질권이 설정된 계좌는 실물이전 자체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전 신청 도중 매수·매도 주문이 걸려 있으면 신청이 자동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가 도입되면서 고객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증권사가 운용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실물이전 제도가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 이동 제약과 절차적인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증권사 관계자는 "퇴직연금 시장 규모가 곧 500조원이 넘어갈텐데 금융당국이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때"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강달러 주춤... 아시아 증시 반등 신호탄

글로벌 투자자, 2차 개발도상국서 지난주 5거래일간 7억 달러 매수 "트럼프 관세충격 예상보다 작아 아시아 주식시장 투자심리 개선세"

글로벌 주식투자자들이 아시아 신흥국 주식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강달러 현상이 주춤해지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공세도 예상보다 강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면서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자들은 지난주 5거래일 동안 아시아 개발도상국(중국 제외) 주식시장에서 7억 달러 이상의 주식을 순매수했다.

이에 따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아시아 신흥국(중국 제외) 지수도 지난주 1.8% 상승했다. 7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던 아시아 증시가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지난주의 상승세로 최근 6개월간 지수 하락 폭도 약

12%로 줄었다.

시장에서는 지난해 달러 강세와 글로벌 무역 긴장 우려로 저조하던 아시아 지역 증시가 반등하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MSCI 아시아 신흥국(중국 제외) 지수의 향후 1년 수익 대비 추가(멀티플)는 약 15배로,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의 22배와 비교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싱가포르마이트리자산운용의 한(Han) 피오 리우 펀드매니저는 "트럼프 관세" 충격이 예상보다 느리고 작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아시아 시장의 투자심리가 개선되고 반등 조짐이 나왔다"면서 "무역 장벽이 낮아지고 달러 약세와 금리 인하가 맞물려 글로벌 성장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을 협상 전술로 보는 견해도 많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에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

하겠다고 밝혔지만 두 나라가 미국의 요구 사항을 일부 수용한 뒤 관세 부과를 한달간 유예했다. 중국과 홍콩의 일부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종료 계획도 연기했다.

관세에 대한 우려가 진정되면서 달러화 가치도 이달 초 고점 대비 3% 이상 하락했다. 이는 아시아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더 많아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달러화 강세가 막바지에 왔다는 신호도 나타났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자료에 따르면 자산 운용사들의 달러화에 대한 전망은 아직 '강세'가 많지만, 최근 4주 연속 둔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같은 수출 주도 경제 국가의 증시도 상승세를 보였다. 이달 들어 코스피 지수는 5.5% 상승해 S&P 500지수 상승률 1.3%를 크게 웃돌았다.

/원관희 기자 wkh@



정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오른쪽)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베어 페티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사장 겸 최고운영책임자(왼쪽)를 만나 MSCI 선진지수 편입 관련 현안 및 양사간 협력사업에 대해 논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오른쪽)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베어 페티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사장 겸 최고운영책임자(왼쪽)를 만나 MSCI 선진지수 편입 관련 현안 및 양사간 협력사업에 대해 논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금정호 신영증권 부사장, 사장으로 승진

정헌기 총괄 전무→부사장 승진

신영증권이 기업금융(IB) 부문 전문가로 불리는 금정호 부사장(사진)을 새 수장으로 맞이했다.

신영증권은 24일 정기인사에서 금정호 부사장이 흡세일 본부 IB총괄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했다고 밝혔다.

금정호 부사장은 1966년생으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동대학원 경영학과 석사를 수료했다. 1990년 동양종합금융 입사를 통해 증권가에 입성

했으며, 한국투자증권, 브릿지증권, 동부증권 등을 거친 후 2006년부터 신영증권에 합류했다. 신영증권에서 IB Coverage 그룹 담당임원(이사), IB 담당 임원·본부장(상무), IB총괄(전무) 등을 거쳤으며 흡세일 본부, IB총괄 부사장까지 올랐다.

금정호 부사장은 신영증권에서 IB 부문을 도맡으며 성장세를 이끌어 왔다. 신영증권은 중소기업사 IPO(기업공개) 강자로 꼽히며, 올해도 10여개사의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 신영증권은 이번 인사에서 정헌기 FICC본부 총괄 전무를 부사장으로 올렸다.

정 부사장은 1969년생으로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한국외환은행, 하나대투증권 등에서 2009년 신영증권 채권금융부(부장)로 올랐다. 이후 신영증권채권금융부(이사), 신영증권 FICC본부본부장(전무), 신영증권 Structured Products 본부·FICC본부 총괄 부사장 등을 역임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증권사들, 일반환전 서비스 시장 출사표

신한투자, 개인·기업 대상 출시 계획 키움·삼성·NH·미래에셋도 준비중

국내 대형증권사들이 일반환전 서비스 시장 선점경쟁에 본격 뛰어들고 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개인, 기업 고객 대상 일반환전 업무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9월 국내 증권사 중 두 번째로 일반환전 인가를 획득했다.

이외에도 키움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이 일반환전 인가를 받으면서 환전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일반환전 업무 인가를 받지 않은 초대형 IB인 한국투자증권과 KB증권도 시장 진출을 검토중이다.

KB증권 관계자는 "대고객 외환서비스 확대를 위한 일반환전 체크리스트를

마련 중"이라며 "금융당국의 인허가 절차를 준수해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환전시장은 낮은 수수료를 앞세운 은행이 독점하고 있다. 증권사들이 큰 수익을 남기기 힘든 시장이란 얘기가.

증권사들은 리테일 부문 강화와 서학개미(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 시장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업계 관계자는 "환전 업무 자체가 수익이 된다기보다는 서비스 차원에서 실시되는 부분"이라며 "일부 리테일 고객들은 서비스 범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면이 있기도 하고, 서학개미가 늘어남 만큼 타 증권사와 서비스 유무 차이가 나는 부분을 방어함과 동시에 일부 파생상품 등과 연계하기 위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